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07
2017 | Vol. 546

교토의 호넨인 (法然院)
Photo : Zoh Hyunmin

일한정상회담

7월 7일, 9시 40분(현지시각)부터 약 35분간 G20 정상회의 참석 차, 독일 함부르크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총리대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 정상회담을 가진 바, 회담 개요는 다음과 같다(일본 측 배석자 :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郎) 관방부장관, 하세가와 에이이치(長谷川榮一) 총리 보좌관,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안보국장 외, 한국 측 배석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

서두에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일한 관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정치 ·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아베 총리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인 일한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지방 도시 교류 및 관광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의 감정 개선으로 이어가기를 바란다며, 내년 평창올림픽과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양국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교류를 힘차게 추진하자고 말했다. 또,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가자는 데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는, 7월 6일 일한미 정상회담에서 (1)3국이 긴밀히 공조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또 중국이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 갈 것, (2)중국 기업 등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일한이 미국과 연대해 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은 최대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외화획득원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일한 및 일한미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일한 및 일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일한 관계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일한 양국은 이웃이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일한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 가는 것이 일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며, 일한 합의는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불가결한 기반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양국 정상은 계속 긴밀히 소통하는데 의견을 일치했고,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Photo: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일한외교장관 전화회담

6월 21일 11시 20분부터 약 2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회담을 가졌으며, 회담 개요는 다음과 같다.

기시다 외무대신은 강경화 장관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일본에게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한 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강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발언했다.
또, 양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일한 및 일한미가
긴밀히 연계해 압력을 강화해 갈 것을 확인했다.
또, 일한 관계에 대해, 기시다 외무대신은 일한 합의를 포함해
양자 간 관계를 적절히 관리해 가자고 발언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축사

지난 18일,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축사를 보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강경화 각하

이번에 각하께서 외교부 장관에 임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일본에 있어서 귀국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일한양국의 협력과 연대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앞으로 각하와 긴밀히 연대하며 여러 분야에서 일한양국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각하께서 지금까지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일한관계의 가일층의 발전, 또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능력을 힘껏 발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각하와 손을 맞잡고 미래지향적인 일한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만나 뵙고 기탄 없는 의견 교환을 고대하면서
각하의 건승과 가일층의 활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 년 6월

일본국외무대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같은 이름이 맺어준 인연
대전광역시와 오다시

오모리 거리의 모습

세계 유산, 국립 공원의 도시 – 오다시

아름다운 너도밤나무 숲에서 여러 동물이 서식하는 산베산(三瓶山), 마린 블루 빛을 띤 망망대해의 일본해. 시마네현(島根県) 중앙에 자리잡은 오다시(大田市)는 바다와 산 모두를 즐길 수 있는 자연이 풍요로운 곳이다. 일찍이 은 산업으로 활기를 띠던 오모리(大森) 거리는 지금도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 다이센오키(大山隠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베산에서 태고의 매몰림(埋没林, 국가천연기념물 지정)이 발견되었으며, 10.2m의 높이에 압도된다.

소리 나는 모래로 유명한 일본해의 모래사장 '고토가하마(琴ケ浜)', 세계에서 가장 큰, 1년 모래 시계가 시간을 새기는 '니마샌드뮤지엄(仁摩サンドミュージアム)도 오다시의 상징이다. 또한 풍부한 용출량을 자랑하는 산베온천(三瓶温泉), 세계유산등재 지역 안에 있는 온천마을로서의 '유노쓰온천(温泉津温泉)도 빼놓을 수 없다. 산해진미를 즐기면서 심신을 재충전하자. 또한 도예 팬이 좋아하는 장소로 서일본 최대급의 오름가마가 있는 '야키모노노사토(やきものの里). 전통 속에서 손으로 빚은 깊이 있는 도자기가 나지막하게 말을 걸어올 것 같다.

이와미긴잔(石見銀山)은 1526년 발견되었다고 하며,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까지는 동아시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량의 은을 생산했고, 중국과 유럽 등 외국인들이 일본에 매료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와미의 은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문화 교류를 한 사실과 은을 생산한 당시의 유적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은으로 발전한 광산 도시와 항구 도시의 생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2007년 7월 '이와미긴잔 유적과 그 문화적 경관(石見銀山遺跡とその文化的景観)'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2017년 7월 '이와미긴잔 유적과 그 문화적 경관'이 세계유산등재 1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 자연, 문화와 접할 수 있는 즐거운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우선, 7월부터 최대 20m에 이르는 이와미긴잔 최대 갱도인 오쿠보마부(大久保間歩)의 공개 구역을 확대한다. 고대 이즈모역사박물관(古代出雲歴史博物館)과 이와미긴잔자료관(石見銀山資料館) 2관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이와미긴잔전에서는 귀

1987년 11월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자매도시결연 조인식

중한 자료가 공개되어, 이와미긴잔의 역할과 역사적 가치를 소개한다. 또 세계유산 거리에서는 기모노를 입고, 머리를 묶은 채 여유롭게 걸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오다시와 대전광역시의 자매도시 결연

오다시와, 한국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한 대도시로서 고속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인 대전광역시는 1987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에서 조인식을 열어, 두 도시의 시장이 조인서에 서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을 것을 다짐했다. 오다시로서는 첫 해외 자매도시 결연이었다.

자매도시 결연의 계기는 1986년 결성된 세키토 지구(石東地区) 일한친선협회가 양국의 우호를 다지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다. 1987년 봄, 첫 방한단이 대전광역시를 예방했다. 오다시와 대전광역시의 한자 표기가 '大田'으로 같은데, 이런 실례는 세계에서도 유일하며, 오다시에는 '가라시마(韓島)'나 '가라코야마(韓郷山)' 등의 지명이 남아 있어,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연관이 깊으니 '자매도시 결연을 맺자'는 이야기가 진행되었으며,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2007년 11월 자매도시 결연 체결 20주년 기념사업 '일한전통예능제'에서 인사하는 다케코시 오다시 시장

2014년 8월 청소년교류사업에서 대전광역시 중학생과 오다시 중학생의 단체 사진

산베산

자매도시 교류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한 이듬해인 1988년부터 오다시 시내 중학생이 대전광역시를 방문하여 홈스테이와 문화 체험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교류사업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오다시 시내 중학생이 대전광역시를 찾아 교류하는 사업뿐이었지만, 1996년 1월 처음으로 대전광역시 중학생이 오다시를 방문해서 오다 시내의 중학교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 후 2002년부터 격년으로 상호 방문하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 8월에는 오다시가 대전광역시 청소년을 맞이하여 교류할 예정이다.

1997년 11월에는 자매도시 결연 10주년 기념사업을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에서 부시장을 초청하여 기념식과 대전광역시립 연정국악연구원의 연주회가 이루어졌다.

또 2001년 2월에는 대전광역시 의회와 오다시 의회가 두 도시 간의 친선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문화 교류 등 공동발전을 위해 '교류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자매도시 결연 20주년이 된 2007년 11월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최영란 예술단' 및 타악 그룹 'GUT'와 오다시에서 '이와미긴잔 덴료타이코(天領太鼓)'를 초청하여 '일한전통예술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분들이 양국의 전통예능을 즐겼다.

또 2002년 7월, 대전광역시와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금이 마련되었다. 이 조성금을 이용해서 민간단체가 교류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에서 가구라단(神楽団) 공연도 개최했다.

류겐지마부

앞으로의 교류

자매도시 결연 이듬해부터 시작된 청소년 교류는, 방한 교류가 17회, 방일 교류는 올해로 10회째이며, 이 교류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동시에, 참가자가 폭넓은 체험을 통해 국제적 감각이나 룰을 체감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하고자 한다.

또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민간 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두 도시의 우호 친선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오다시 홈페이지 http://www.city.ohda.lg.jp/

(집필: 오다시, 협력: CLAIR, Seoul)

나가사키현 시마바라시

운젠다케 재해기념관

시마바라시

시마바라시(島原市)는 나가사키현(長崎県) 남동부의 시마바라반도(島原半島) 동쪽 끝에 위치한 인구 4만 6천의 도시다. 중앙부의 마유야마산(眉山, 해발 818.7m)을 중심으로 동쪽의 아리아케해(有明海)로 이어지는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유야마산의 동쪽 경사면에는 1792년의 대규모 붕괴 흔적이 있는데, 붕괴된 하부로부터 쓰쿠모섬(九十九島) 주변 해역에 걸쳐 다수의 나가레야마(流山) 즉, 붕괴로 생긴 작은 산모양의 돌기가 분포하고 있다. 또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역사적 유산, 화산과 온천, 도시 곳곳의 용천 지대 등 지역 자원을 살린 관광도시이자, 나가사키현 내 유수의 농업지대이기도 하다.

물이 솟아나는 성하마을, 시마바라

시마바라시는 '용수 성하마을(湧水城下町)'로 불리는 것처럼, 시내 도처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과 역사적 유산이 다수 존재하는 역사적 정취가 가득한 곳이다. 시마바라 용수군은 1985년 1월, 환경청(環境庁)으로부터 '일본의 명수 100선'에 선정되었다. 시내 60여 곳에 용수지가 흩어져 있으며, 1일 용수량은 무려 20만 톤이라고 한다. 이 풍부한 용수를 활용해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잉어가 헤엄치는 마을'이라 불리는 전장 100m 길이의 수

용수정원 시메이소

시마바라성

로다. 이 수로는, 빛깔 고운 비단잉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참으로 시마바라다운 명소다. 이곳과 인접한 곳에 '용수정원 시메이소(四明荘)'가 있다. 시메이소는 메이지(明治)시대 후기에 별장으로 지어졌는데, 사방의 조망이 뛰어나 '시메이소'라는 이름이 붙었다. 정원에는 크고 작은 3개의 연못이 있으며, 하루 3천 톤의 물이 솟아나고 있다. 고요한 풍취는, 어딘지 그립고, 시간을 잊고 느긋해질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잉어가 헤엄치는 마을' 이라 불리는 수로

또 역사적 정취가 가득한 고장으로 유명한 시마바라의 상징으로 사랑 받고 있는 곳이 시마바라성(島原城)이다. 시마바라성은 1616년 야마토(大和, 나라현(奈良県)) 고조(五条)에서 시마바라로 봉토를 바꾼 마쓰쿠라 분고노카미 시게마사(松倉豊後守重政)가 1618년부터 7년에 걸쳐 쌓은 성이다. 시마바라성은, 마쓰쿠라씨(松倉氏), 고리키씨(高力氏), 마쓰다이라씨(松平氏), 도다씨(戸田氏)의 4성 19대 253년을 함께했지만, 1874년 폐허가 되어 민간에 매각된 이래, 글자 그대로 황성(荒城)이 되어 버렸지만, 1964년에 천수각이 복원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성 내 건물은 그리스도사료관(천수각), 세이보기념관(다쓰미노 야구라 망루), 민예품자료관(우시토라노 야구라 망루)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관광객에게 당시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간바노유비키

간자라시

시마바라반도 유네스코 세계 지오파크

시마바라시를 포함해 3개 시로 구성된 시마바라반도(시마바라시, 운젠시(雲仙市), 미나미시마바라시(南島原市))의 풍부한 자연이 만들어 낸 '시마바라반도 세계 지오파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이용해, 이 땅과 지구가 이룩된 과정을 배우고, 이들과 우리의 관계를 즐겁게, 바르게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자연 공원인 '지오파크'로 인정받았다. 시마바라반도 세계 지오파크의 특징은, 무엇보다 세계적인 활화산, 운젠 화산이 일으킨 재앙과 운젠 화산이 만들어 낸 멋진 자연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활화산을 주제로 한 세계 지오파크는 세계적으로도 그 예가 적다. 화산은 때로 재해를 초래한다. 하지만, 평소에는 우리에게 더없는 혜택을 베풀어 주고 있다. '사람과 화산의 공생'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시마바라 반도 세계 지오파크의 큰 특징이다. 이곳의 매력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운젠다케 재해기념관(雲仙岳災害記念館)'이다. 화산에 대해 보고, 체험하고, 놀고, 배우고, 쉬는, 화산에 관한 지적 엔터테인먼트가 가득한 아주 굉장한 공간이다.

구조니

풍요로운 자연이 가져다 준 특산품

시마바라에는 풍요로운 자연이 가져다 준 특산품이 많다. 이번에는 그 가운데 3개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구조니(具雜煮)'다. 구조니는 산해진미 등 수십 가지의 재료가 들어간 향토 음식으로, 그 기원은 시마바라의 난으로 하라성(原城)에서 농성하던 아마쿠사 시로(天草四郎)가 농민들에게 떡을 모으게 해, 갖은 재료와 함께 끓인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간바노유비키'다. 이는 복어에 끓는 물을 부어 겉면만 익힌 것으로 매실 장아찌, 간장, 술, 식초로 만든 양념장에 당근이나 빨간 고추를 강판에 간 모미지오로시 등을 곁들여 먹는, 꼬들꼬들한 식감에 중독이 되는 요리다. 시마바라에서는 '복어'에 대해, '관을 짜 놓고서라도 먹고 싶다'는 의미를 담아 '간바'라 부른다. 세 번째는 '간자라시'다. 간자라시는 찹쌀 가루로 만든 작은 경단을 시마바라의 용수로 식혀, 벌꿀과 설탕 등으로 만든 특제 꿀을 바른 것으로, 입 안에서 녹을 듯한 품위 있는 단맛과 목 넘김이 좋아 인기 있는 소박한 향토의 맛이다. 원료가 되는 찹쌀을 대한(大寒) 절기에 물에 담가 두었던 데서 '간자라시'라 부른다. 예전에는 시럽으로 쓰이던 설탕과 벌꿀이 사치품이었으므로, 손님 접대용으로 쓰였다고 한다.

(집필: 시마바라시, 협력: CLAIR, Seoul)

시를 통해 그려보는 사람 사는 세상

도쿄특파원을 지낸 경제 분야의 해설위원이지만 '시로 읽는 경제 이야기'라는 칼럼을 쓸 정도로 시에도 조예가 깊어, "간단한 시를 통해 현상을 표현해서, 읽는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임병걸 KBS 해설위원과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1987년 KBS에 입사해서 주로 경제부 기자로 일했으며, 1998년 게이오대학교 국제어학센터에서 1년간 연수한 후, 도쿄특파원으로 3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후, 경제팀 부장, 사회팀 부장을 거쳐, TV 토론방송 '일요진단'의 사회자를 맡았습니다. 현재는 주로 경제 분야의 해설위원, 그리고 KBS 월드 라디오의 일본어 토론방송 '금요좌담회' 사회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인연과 일본어를 공부한 계기는?

특별한 계기는 없었지만, 10년간 기자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해외에서 연수를 받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 대기업이 저널리스트를 지원하는 제도에 응모, 게이오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첫인상은 '사람도 풍경도 매우 조용한 나라' 였습니다. 전통적인 정취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簡単に自己紹介をお願いします。

1997年, KBSに入社して主に経済部の記者として働き, 1998年には慶應大学国際語学センターで1年間研修を受けてから東京特派員として3年間勤めました。それから経済チーム部長, 社会チーム部長を経て, テレビ討論番組「日曜診断」の司会者も務めました。現在は, 主に経済分野の解説委員, そしてKBSワールドラジオの日本語討論番組「金曜座談会」の司会者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

日本との縁, 日本語を勉強したきっかけは。

特別なきっかけ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 10年間記者として一生懸命働いたので1年くらいは海外で研修を受けたいと思い, 当時, 韓国の大手企業側がジャーナリストを支援する制度に応募し, 慶應大学で勉強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日本の第一印象は「人も風景も非常に静かな国」ということでした。伝統的な趣が多く残っていることが非常に印象的でした。もう一つは, 森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숲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원을 매우 좋아하는데, NHK 방송국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거의 매일처럼 산책을 즐겼습니다. 바쁜 특파원 생활의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본어 공부방법은. 어렵다고 느낀 점과 재미있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게이오대학교 국제어학센터에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한 때가 38세였는데, 어른이 되어 일본어를 공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어를 가르쳐 주셨던 센터 선생님도 매우 훌륭하셨고, 대부분의 반 친구들이 젊은 학생들이라 인생의 선배로서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일본어의 한자는 한국의 한자와 거의 비슷해서, 그다지 어려움은 느끼지 않은 반면,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발달한 부사와 형용사 표현과 뉘앙스 같은 섬세한 부분의 차이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도쿄특파원으로 근무하셨을 때의 추억과 취재를 통해 보게 된 다른 점, 또 서로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게이오대학교에서 연수가 끝나자마자 도쿄특파원이 되었지만, 당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가 많이었습니다. 私は特に公園が大好きで, NHK放送局の近くにある公園ではほぼ毎日散歩を楽しみました。忙しかった特派員生活のストレスを発散できる幸せな時間でした。

個人的な日本語の勉強方法。難しいと思ったことや面白いと思ったことは。

慶應大学国際語学センターで日本語を学び始めたのが38歳でした。大人になってから日本語を勉強するのは非常に難しかったです。しかし, 当時日本語を教わったセンターの先生も非常に素晴らしかった上に, クラスメートはほとんどが若い学生だったため, 人生の先輩として一生懸命勉強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状況もあって, 諦めずに頑張って勉強しました。日本語の漢字は韓国の漢字とほぼ同じですので, あまり難しさは感じませんでした。一方, 韓国語と日本語ともに発達している副詞と形容詞の表現やニュアンスといった繊細な部分の違いが一番難しかったです。

東京特派員として勤務されていたときの思い出, 取材を通じて見えた相違点, また, お互いに学ぶべき点は何でしょうか。

慶應大学での研修が終わってすぐに東京特派員になりましたが, 当時は日韓関係が最も好調な時期でした。様々な分野において多くの交流が行われたため非常に忙しかったですが, 友好的な両国関係の中で楽しく働きました。また, 韓国が金融危機で苦しかった時, 日本は「失われた10年」という経済の低迷が続いている時期でした。そのような状況の中でも比較的安定的なシステムを持っていた日本を学ぶべきだと思いました。その当時, ソウルから韓国における金融危機や不動産投機, 負債問題, 企業側の構造改革問題などを日本がどのように克服したかが分かる事例への取材要請が多かったです。もちろん, 20年前と比べれば, 日本を参考にしようとする韓国の雰囲気は薄まっていますが, 韓国が日本から学べることはまだ多く, 特に韓国企業が学ぶべきものが日本企業には大いにあると思います。

昨年からKBS ワールドラジオ「日本語放送」の時事番組も担当されていますが, どのような内容を扱っているのか,

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매우 바빴지만, 우호적인 양국 관계 속에서 즐겁게 근무했습니다. 또, 한국이 금융위기로 어려웠을 때,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제불황이 지속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일본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한국의 금융위기와 부동산 투기, 부채 문제, 기업의 구조개혁 문제 등을 일본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 수 있는 사례를 취재하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물론, 20년 전과 비교해서 일본을 참고하려는 한국 내의 분위기는 옅어졌지만, 그럼에도 일본에서 배울 점이 아직은 많고, 특히 한국 기업이 배워야 할 점이 일본 기업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KBS 월드 라디오 '일본어 방송'의 시사프로그램도 담당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일본 측에서는, 주로 일본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한국인 학자가, 한국 측에서는, 일본 언론의 한국 특파원 · 지점장이 게스트로 출연해서, 일본이 본 한국, 일본인 저널리스트가 생각하는 현안 등 한국과 일본의 중요 문제를 다루며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시청자로부터 토론 내용에 관한 동의, 반대 의견은 물론, 다루었으면 하는 테마 요청 등 여러 의견을 받고 있는데, 가능한 한 방송에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 새 정권이 출범하며 어떻게 셔틀 외교를 재개할 수 있을지, 보류되었던 양국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경제 협력 문제 등에 대해 다루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가 간 교류, 특히 양국 교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양국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양국 관계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의 언론도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작년 9월, 도쿄에서 열린 '일한중 저널리스트 회의'에 참가했는데, 역사 인식과 영토 문제 등을 둘러싼 분명한 견해차가 있다는 것을 느

簡単な紹介をお願い致します。

日本側からは主に日本で研究する韓国人学者が，韓国側からは日本メディアの韓国特派員・支局長が出演し，日本が見る韓国，日本人ジャーナリストが考える懸案など，日韓間において最も重要な問題を取り上げて討論する番組です。日本の方がこの番組を聞くと，韓国に対しての理解が非常に深まると思います。視聴者からは，討論の内容に対する同意，反対の意見はもちろん，取り上げてほしいテーマの要請など，様々な意見を頂いていますが，なるべく番組に反映しようとしています。今後は，韓国の新政権発足を受け，いかにシャトル外交を再開できるか，棚上げになった両国間の問題をどのように解決していくのか，経済における協力問題などを取り上げてみたいです。

今後，国家間の交流，特に両国交流はどんな方向で進めるのが望ましいと思われますか。また，その際に両国のメディアは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すべきでしょうか。

日韓関係においてメディアの役割は非常に重要だと思います。しかし，どの国のメディアでも中立的な立場を維持することは非常に難しいのです。昨年9月，東京で開かれた日韓中

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 '언론은 국가 간 대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선정적인 보도는 피하고, 미래지향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 등과 같은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KBS와 NHK가 공동으로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같은, 공동 제작을 통한 언론 교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정치적인 테마를 주로 다뤘지만, 서로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앞으로는 역사교과서 문제와 과거청산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 면에서도 양국의 저널리스트를 상대국에 파견해서 언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왜 한국과 일본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시아 전체의 평화 유지를 위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에는 불행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활동 이외도 시집을 출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가 있다면?

한국에서는 일본 시가 소개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를 소개하는 책과 시집으로 공부하면서, 일본의 시인은, 현재의 일본을 시를 통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국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취재하면서 시도 짓지만, 최근에는 '시로 읽는 경제 이야기' 라는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시와 경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많은 '시'가 실업 문제, 고령화 문제, 빈부 격차 등 일상 생활의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감각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간단한 시로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읽는 사람이 더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ジャーナリスト会議に参加しましたが，歴史認識や領土問題などをめぐって，はっきりとした見解の隔たりがあることを感じました。それでも，「メディアの役割は重要である」，「メディアは国家間の対立を和らげる役割を果たすべきだ」，「扇情的な報道は避けて，未来志向的な報道をすべきだ」などといった原則には皆が同意していました。メディアは相手の立場を理解しようとする努力が必要だと思います。その方法の一つとして，KBSとNHKが共同で制作した歴史ドキュメンタリーのような，共同制作を通じたメディア交流があります。これまでは非政治的なテーマを主に扱いましたが，互いが十分に意見を交わし，これからは歴史教科書問題や過去の清算問題などを真正面から扱うべき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そして，人と人との交流という面においても，両国のジャーナリストを相手国に派遣することでメディアへの理解を深めることも重要です。

なぜ日韓は協力しなくて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

「アジア全体の平和を維持すべくバランスを取るため」にも，日韓は緊密に協力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両国間には不幸な時期がありました。しかし，それが全てではなく，長期的な目で見ると，日韓は「良い関係にならなくてはならない」関係であります。これからも様々な紆余曲折はあると思いますが，日韓関係はきっと良くなると思います。

放送活動以外にも詩集を出版されるなど，多様な活動をされていますが，今後，やりたいことや目標は。

韓国では日本の詩について紹介されたことがあまりありません。そのため，日本の詩を紹介する本や詩集を基に勉強しつつ，日本の詩人は現在の日本を詩を通じてどのように描いているか韓国に紹介していきたいです。私は取材をしながら詩も作っており，最近は「詩で読む経済物語」というコラムを書いています。詩と経済は関係がないと思う人が多いが，数多くの詩が失業者問題，高齢化問題，貧富の格差などといった普段の生活における様々な問題を取り上げています。また，経済を説明するためには論理的かつ数学的な感覚が必要とされますが，時々，簡単な詩で現象を象徴的に表現することで，読む人がより感動的に受け入れる場合もあります

갸또마마 Gatto Mama

명일동 주택가에 위치한 갸또마마. 엄마의 마음으로 과자를 굽는다는 뜻의 가게 이름처럼, 유기농 재료에 자연 발효시킨 빵을 만드는 등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문윤숙 파티쉐와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갸또마마'는 무슨 뜻인가요.

'갸또'는 프랑스어로 구운 과자라는 뜻이고, '마마'는 일본어로 엄마를 뜻합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과자를 구워주는 마음을 담는다'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제과보다 제빵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한국인에게 제과는 케이크처럼 특별한 날에 먹거나 선물용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 제빵은 일상적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희 가게의 빵은 일반 빵보다 조금 더 특별하고 특이한 빵이 많은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빵 · 제과를 배우게 된 계기는.

저는 원래 플로리스트였습니다. 꽃으로 예쁘게 꾸며 놓고 디저트로 어레인지 하면, 아주 예쁜 결과가 나오는데, 항상 작업 끝에 손이 가는 부분이 디저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디저트에 관심이 많아졌고, '디저트를 배워볼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빵 · 제과를 배우다 보니 꽃보다는 디저트나 빵 종류가 제게 더 잘 어울린다는 걸 알고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제빵 · 제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제빵 문화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프랑스 빵은 '고급스러운' 느낌의 딱딱한 빵이 많은데, 부드러운 빵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입맛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반면, 일본 빵은 프랑스 빵을 순화시킨, 한 끼 식사

가 될 수 있는 조리 빵이 많아, 한국인들이 좋아합니다. 저희 가게만 봐도 딱딱한 계열의 빵보다 일본식의 부드러운 빵이 훨씬 매출이 좋습니다. 케이크도 마찬가지로 일본 케이크를 더 선호합니다. 일본 케이크는 생크림을 펴 바른 아이싱 케이크가 대표적이지만, 프랑스는 아이싱 케이크가 없고 틀에 굳힌 무스 케이크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아이스크림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스 케이크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는 일본식 제빵 · 제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빵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눈대중으로 발효 시간을 확인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 아카데미에서는 요리 기구 잡는 법부터 재료 사용법까지 가르쳐 주며, 정확한 레시피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점이 좋았습니다. 한국의 제빵 · 제과 문화는 현지에서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이 성장했지만, 대를 이어가며 한가지만을 고집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소비층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가게도 한 달에 한 번씩 신메뉴를 내놓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고 가게를 운영(인테리어 · 상품 개발 · 서비스 등)하며,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일본은 포장 문화가 발달해서 예쁜 케이스의 소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위한 소품과 도구도 많고,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가게에서도 일본처럼 예쁘게 포장해서 판매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려면 상품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플한 포장으로 빵의 단가를 낮추어, 손님들이 수제 과자를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미각 차이는 어떤가요? 빵을 만들 때, 그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일본의 제과 · 제빵은 한국인의 입맛에 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일본푸딩을 느끼하고 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져온 레시피로 빵을 만들 때는 당도부터 조절하고, 느끼한 것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입맛을 고려해서 만듭니다.

또, 일본인은 일반적으로 녹차를 좋아하지만, 한국인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제과 문화도 일본에서는 맛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 쇼트닝을 쓰지만, 한국에서는 버터를 선호합니다. 한국인의 입맛을 보면 연령층에 따라 다른데, 젊은 층은 초콜릿 같은 단 것을 좋아하고, 20~30대는 상큼하고 바삭한 것을 좋아합니다. 중년층은 당도, 쌀가루나 천연 발효종의 사용 여부 등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현재 오픈 키친으로 만들어진 작업장을 좀 더 넓히고 싶습니다. 원래 공방 개념의 가게를 원해서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지만, 제빵 기계를 들여놓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작업장을 넓히고 기계도 설치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만들 수 없었던 품목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2017 여름일본문화소개전
체험으로 즐기는 일본의 완구와 놀이문화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7월 24일(월)부터 8월 5일(토)까지 '2017 여름일본문화소개전'을 개최하며,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연,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행사 예약 등 자세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료관람, 무료체험.

일시 7월 24일(월)~8월 5일(토)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문의 02-765-3011(120, 123) www.kr.emb-japan.go.jp

일본의 완구전시 및 체험 코너

에도시대(1603년~1868년)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어린이들이 즐겼던 놀이를 전시와 체험으로 소개하는 행사.

여름 축제 놀이 체험

긴교스쿠이(금붕어 건지기), 요요쓰리(요요풍선 낚기), 전통의상(핫피, 유카타) 체험, 캐릭터가면 써보기 등 일본의 여름 축제를 체험할 수 있다.

쇼와(昭和 : 1926년~1989년)의 어린이들 일러스트 전시

일본의 산업디자이너 겸 일러스트레이터 이치야마 마사토시(市山雅利) 씨의 '쇼와의 어린이들' 시리즈 일러스트 작품 약 15점이 전시된다.

에테가미 워크숍

일본문화소개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워크숍으로 20여 년간 에테가미(絵手紙, 그림편지) 강사로 활동 중인 후쿠마 에리코(福馬江里子) 씨를 초청해 워크숍을 실시한다.

일시 7월 26일(수), 28일(금) 15:00~17: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모집 중학생 이상~성인, 18명(각 회당, 총 36명)
신청 7월 10일(월)~7월 23일(일)(선착순 마감)
방법 이메일 event@so.mofa.go.jp 예약 신청. 참가비 무료.

초등학생 일본문화체험교실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의 일본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직원이 일본문화 소개와 퀴즈대회, 종이공작 등을 진행한다.

일시 7월 24일(월), 25일(화), 26일(수), 28일(금), 29일(토), 31일(월), 8월 3일(목), 5일(토) 11:00~12:1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모집 초등학생 전학년(각 회당 20명 이내)
신청 7월 10일(월)~각 체험일 2일 전(선착순 마감)
방법 이메일 event@so.mofa.go.jp 예약 신청. 참가비 무료.

일본의 풍경 콘서트 Vol.2

2015년 여름 공연에 이은 두 번째 '일본의 풍경 콘서트'. 일본음악연주집단 요시오카 호가쿠샤(吉岡邦楽社)는 샤쿠하치와 고토를 중심으로 구성된 팀으로 한국에서도 다수의 공연을 통해 호평 받고 있다.

일시 8월 5일(토) 15: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신청 7월 10일(월)~8월 3일(목)
방법 이메일 event@so.mofa.go.jp 예약 신청

일본 전통악기 고토 워크숍

고토(箏) 연주가 도미모토 세이에이(富元清英) 씨와 함께 하는 고토 연주 체험. 이번 워크숍에서는 고토의 기초 상식과 기본 연주법을 배워보고, 일본을 대표하는 전래곡 '사쿠라'를 연주한다.

일시 8월 4일(금) 15:00~17: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신청 7월 10일(월)~8월 2일(수)
방법 이메일 event@so.mofa.go.jp 예약 신청(25명 모집)

뮤직퍼포먼스 그룹 파오파오도 & 곡예사 다이헤이요가 함께 하는 다이도게쇼!

색소폰과 타악기로 이루어진 유쾌한 5인조 뮤직퍼포먼스 그룹 파오파오도의 흥겨운 공연과 서양식 저글링을 일본전통곡예에 접목한 묘기와 외줄타기곡예가 메인 퍼포먼스인 다이헤이요(太平洋)의 두근두근 곡예를 만나볼 수 있다.

일시 8월 1일(화) 19:30, 8월 2일(수) 14: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신청 7월 10일(월)~30일(일)
방법 이메일 event@so.mofa.go.jp 예약 신청

제15회 일본가요대회
J-POP 부르고, 일본도 가자!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일본가요대회 참가자 응모가 7월 10일까지 진행되며,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는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15개팀은, 7월 29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열리는 본선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본선 입상자에게는 일본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 기회와 푸짐한 부상이 주어진다.
일본개요대회 참가를 원하는 분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jmic@so.mofa.go.jp)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기간 6월 12일(월)~7월 10일(월)
예선대회 7월 14일(금) 14:00~, 7월 15일(토)~16일(일) 10:30~
본선대회 7월 29일(토) 16:30~18: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반법인 음악산업 · 문화진흥재단(PROMIC)
후원 ㈜DREAM BOY, NAGARA Production.,Ltd., DK KOREA, ANA, YAMAHA MUSIC KOREA, Nikon, SOLARIA NISHITETSU HOTEL, Serafina New York , Grace International
문의 02-765-3011(110,125) jmic@so.mofa.go.jp

축하공연 아티스트
이와사 미사키 岩佐美咲

2008년에 열린 'AKB48 제4회 연구생 (7기생) 오디션' 합격 후, AKB48 '팀A' 에 배속되었다.
AKB48 중에서도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이와사 미사키는 그룹 최초의 엔카 가수로서 2012년 2월 1일에 싱글 '무진에키(無人駅)'로 AKB48 멤버로서는 세 번째 솔로 데뷔를 이루었다.
2014년 1월 발매한 세 번째 싱글 '도모노우라보조(鞆の浦慕情)'로 오리콘 주간 종합 싱글 순위 1위를 기록했으며, 10대 엔카가수로서는 27년 7개월 만의 일이었다. 또한 싱글 세 작품이 연속으로 TOP10 진입을 이루었는데 이는 여성 엔카 아티스트로서는 40년 11개월 만의 쾌거였다. 2016년 1월에는 다섯 번째 싱글 '고멘네 도쿄(ごめんね東京)'를 발매해 오리콘 주간 종합 순위 6위에 올랐다. 같은 달 30일에는 엔카 가수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아사쿠사 공회당(浅草公会堂)' 에서 첫 솔로 콘서트를 개최해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 후 3월 14일, 약 7년간 재적했던 AKB48을 졸업하고 11월 30일에는 지금까지의 싱글 곡과 커버 곡을 수록한 앨범 '미사키 메구리 제1장(美咲めぐり~第 1 章~)'을 발매하는 등 엔카 가수로서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섯 번째 싱글도 '아키모토 야스시(秋元康)'의 작품으로 후쿠이현(福井県) 에서 교토(京都)로 이어지는 산길 '사바카이도(鯖街道) '를 무대로 애절한 여심을 담아내고 있다.
2017년 1월 29일에는 솔로 콘서트 제2탄을 '아사쿠사 공회당(浅草公会堂)'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Twitter @wasaminnn
Instagram wasaminnn

7월의 일본영화상영회

여름방학특선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의 실사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상영한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 우정을 테마로 한 작품, 그리고 휴먼드라마까지 다양한 소재의 가족영화 10편을 소개한다.

시간 14:30(14:00부터 입장)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히마와리와 나의 7일 ひまわりと子犬の7日間
일시 7월 18일(화)
감독 히라마쓰 에미코
출연 사카이 마사토, 나카타니 미키, 덴덴

핑퐁 ピンポン
일시 7월 19일(수)
감독 소리 후미히코
출연 구보즈카 요스케, 아라타, 나카무라 시도

사토라레 サトラレ
일시 7월 20일(목)
감독 모토히로 가쓰유키
출연 안도 마사노부, 스즈키 교카

파코와 마법동화책 パコと魔法の絵本
일시 7월 21일(금)
감독 나카시마 데쓰야
출연 야쿠쇼 코지, 아야카 윌슨, 쓰마부키 사토시

괜찮아 3반 だいじょうぶ3組
일시 7월 24일(월)
감독 히로키 류이치
출연 오토다케 히로타다

모모와 다락방의 수상한 요괴들 ももへの手紙
일시 7월 25일(화)
감독 오키우라 히로유키
출연 미야마 카렌, 유카, 니시다 도시유키(목소리 출연)

벼랑 위의 포뇨 崖の上のポニョ
일시 7월 26일(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
출연 나라 유리아, 도이 히로키, 야마구치 도모코(목소리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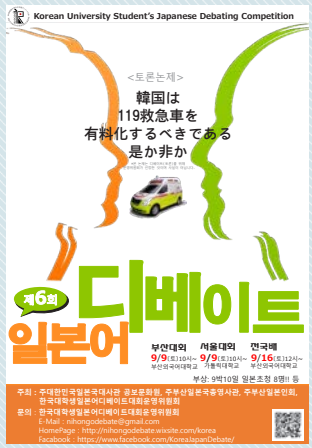
썸머워즈 サマーウォーズ
일시 7월 27일(목)
감독 호소다 마모루
출연 가미키 류노스케, 사쿠라바 나나미(목소리 출연)

코쿠리코 언덕에서 コクリコ坂から
일시 7월 28일(금)
감독 미야자키 고로
출연 나가사와 마사미, 오카다 준이치(목소리 출연)

유어 프렌즈 きみの友だち
일시 7월 31일(월)
감독 히로키 류이치
출연 이시바시 안나, 기타우라 아유, 요시타카 유리코

제6회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대회(서울대회)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디베이트 대회 서울대회(영남지역 대학은 부산대회에 출전)가 9월 9일 개최된다. 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은 9월 16일에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입상자에게는 일본 외무성이 실시하는 일본 방문 프로그램(JENESYS 2017)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논제는 '한국은 119 구급차를 유료화해야 한다'이며, 응모기간은 8월 6일(일)까지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홈페이지(http://nihongodebate.wix.com/korea)에서 확인 가능. 참가무료.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부산일본총영사관, 부산일본인회,
한국대학생일본어디베이트대회 운영위원회
후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서울재팬클럽(SJC), 가톨릭대학교 CORE 사업단, 한국일본어학회, 시사일본어사 등
일시 및 장소
부산대회 : 9월 9일(토), 부산외국어대학교
서울대회 : 9월 9일(토), 가톨릭대학교 성심(부천) 캠퍼스
전국배 : 9월 16일(토), 부산외국어대학교
문의 한국대학생일본어디베이트대회 운영위원회(서울) debate.seoul@gmail.com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2005년 일한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으로 시작된 '한일축제한마당'이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다. 주한 일본대사관이 후원해 온 이 행사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시민교류, 청소년교류, 지방단체교류 등이 포함된 대규모 문화교류행사다. 이 한일축제한마당과 함께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으로 문화교류에 관심 있는 열정적인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

일시 9월 24일(일) 10:00~19:30 / **장소** 코엑스 전시장 D홀

모집 개요

응모자격 고등학생 이상, 한일문화교류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

모집분야

부스팀 : 일한 지방자치단체, 기업홍보, 체험이벤트, 푸드 판매 및 교류부스, 미아 · 응급부스운영
홍보팀 : 개인SNS 업로드, 사진 및 영상기록, 당일 현장 홍보, 홍보부스 운영, 앙케이트 작성지원
무대팀 : 무대, 행사 및 출연팀 지원, 출연팀 수행, 행사장안내, 대기실운영, 악기운반
행사운영팀 : 운영사무국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통역 및 도우미,
안전관리(긴급대응), 행사장 안내 및 정리

신청 기간 및 방법

기간 7월 28일(금) 까지

방법 신청서 1부(한일축제한마당 홈페이지 www.omatsuri.kr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 omatsuri2017@naver.com 접수)

합격자 발표 8월 22일(화) 18:00 한일축제한마당 공식 홈페이지, SNS 및 개별통보

오리엔테이션(1차, 2차 중 택1)

1차 2017년 9월 1일(금) 18:30~20:30 / **2차** : 2017년 9월 3일(일) 14:00~16:00

*오리엔테이션 참석 가능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장소는 추후 공지.

문의 및 신청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 한국측 운영사무국 ㈜샛강나루

TEL 02-702-7724 / **FAX** 02-702-7798 / **e-mail** omatsuri2017@naver.com

2017 일본유학 · 취업박람회

일본유학과 취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2017년 일본유학 · 취업박람회가 7월 15일 부산 벡스코와 7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일정 및 장소

부산 : 7월 15일(토) 11:00~16:00 벡스코 제2전시장(신관) 1층 121호
서울 : 7월 16일(일) 11:00~16:0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8호

세미나 개요

12:00~12:50 일본 유학의 일반 정보 및 장학금 세미나(일본학생지원기구)
14:00~14:35 일본 취업 세미나(대학신문사 국제사업부, 일본어로 진행)
※ 세미나는 신청필수이며, 취업 세미나는 일본어로 진행(신청 : http://studyinjpn.com/ko)

주최 대학신문사

후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문의 라이선스아카데미 서울지사 02-730-1652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学)보고서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라고 불리는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유학생활 중 조충우돌 유학 여행기

나가사키현 시마바라 반도와 구마모토현 아마쿠사 제도 사이 아리아케해에는 약 400 마리의 야생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고 있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남방큰돌고래는 몸이 작은 돌고래종이지만 세계적으로 넓은 분포도를 가진 돌고래로 색깔은 잿빛, 그 크기는 1미터에서 3미터. 몸무게는 150킬로그램에서 650 킬로그램에 달한다.

남방큰돌고래는 사람들에게도 '수영선수'라 불릴 정도로 유영력이 높고, 사람을 잘 따르며 호기심이 왕성하다. 글쎄 잠수하는 잠수부 주변에 옹기종기 모일 정도라고 하니.

시마바라에서도 아마쿠사에서도 돌고래 관찰을 위해 출발하는 곳은 여러곳.

바다를 가르며 부서지는 바닷물살이 오후의 햇살을 한몸에 받으며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로 고고고!

배는 신나게 달려 시마바라와 아마쿠사 제도 사이에 잠시 정착. 하지만 너무도 조용한 바다.

선장아저씨도 돌고래 무리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셨다. 어느새 돌고래를 만나기 위해 여기저기서 모여드는 배들.

●시마바라 반도 구치노쓰 돌고래 워칭●

어른 2,500엔(중학생 이상)
초등학생 1,500엔
유아(만4살 이상) 500엔
소요시간 1시간~ 1시간 20분
출항지점 시마바라 구치노쓰(口の津)

●아마쿠사 제도 돌고래 워칭●

어른 2,500엔(중학생 이상)
초등학생 1,500엔
유아(만2살 이상) 500엔
소요시간 1시간
출항지점 아마쿠사 이쓰와마치(五和町)

*주의- 사전예약, 출항시각표를 꼭 확인합시다.

maidoookini@naver.com